

# 하늘 오르는 길목, 관광객 발길로 식생 훼손



## (102) 진안 마이산 금당사

하늘의 남녀 신선이 내려왔다가 두 봉우리가 되었다는 진안 마이산 전설은 산의 신령성을 잘 보여준다. 특히 마이산 전설은 산이 하늘(天神)과 통하고 아래로 땅(世上)을 거느리는 사제적(司祭的) 존재인 신선의 다른 모습임을 직설적으로 말해준다.

전설이 민담과 구별되는 가장 큰 특징인 지역성과 역사성에 있어서 마이산 전설은 특히 역사성에 강한 면모를 지니고 있다. <용비어천가>에 나오는 금척(金尺) 전설을 비롯해 마이산 처치소소에 남아있는 조선 개국 전설들이 마이산 전설에 역사성을 수월해준다.

마이산은 해발이 685m에 불과하지만, 아름다운 산체(山體)로 해서 국가 명승 제12호로 지정되었고, 우리나라 100대 명산 가운데 지명도가 20위권 안에 들었다. 금당사(金堂寺)가 108사찰 생태기행의 대상에 오른 것도 기실은 마이산 덕이라 할 것이다.

백제가 제2의 전성기를 구가하던 의자왕 무렵 고구려 보덕 스님이 제자들을 대동해 내려와 이곳 금당사를 비롯해 완주 경복사와 김제 흥복사 등을 지어 열반종의 터전을 마련하였다.

진안을 쪽 북부주자창에 내려 긴 계단길을 오르면 마이산 암수 봉우리를 가르는 강정골재 천왕문에 닿는다. 하늘로 오르는 길목이라는 천왕문을 경계로 금강과 삼진강으로 갈라진다. 북쪽사면의 물은 사양계에 모였다가 금강이 되고, 남쪽사면의 물은 탐영계에 모였다가 삼진강이 된다.

천왕문 오른쪽에 솟은 솟대이봉은 산행이 불가능할 정도로 가파르지만, 암마이봉은 산체도 크고 경사가 완만하며 부드러운 식생도 솟대이봉 보다는 풍부한 편이다. 그러나 등산객들의 과도한 이용으로 해서 식생이 많이 망가져 2014년까지 입산 통제되었다.

솟대이봉 암벽 틈에 자리한 화염굴 주변은 무분별한 무속행위로 주위 환경이 많이 오염 훼손되었다. 한부로 버려진 기도실을 먹으며 새들이 들어와 배설물을 싸놓는 바람에 천년약수로 소문난 석간수는 진작 오염되고 말았다.

솟대이봉에 기대어 앉은 은수사 샘터에 '섬진강 발원지'라는 표지석이 서 있다. 하지만, 최장의 발원지는 백운면 팔공산 골짜기에 있는 데미샘이다.

발원지 표지석 아래 쪽 마당 한켠에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청실배나무가 있다. 높이는 15m이며, 4개의 큰 줄기가 갈라져 있다. 수령이 640년으로 알려져 있으나, 실사(實査)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태조 이성계가 무인시절 이곳을 찾아와 기도하면서 심었다는 전설에 근거한 것이다.

청실배나무는 장미과 낙엽활엽수로, 산돌배나무와 비슷하다. 잎은 툇나기 있는 타원형으로 양면에 털이 없고 단단하다. 봄에 흰 꽃이 피고, 가을에 열매가 노랗게 익는다. 크기는 산돌배보다 약간 작다.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것은 회귀성 때문이다.

은수사 마당에 서면 암수 두 마이봉을 모두 배관할 수 있다. 마이산은 크게 역암과 화강암질 편마암으로



구성되어있다. 백악기에 솟아오른 지층이 오랜 세월이 흐르는 동안 침식에 강한 역암은 돔(dome) 모양의 봉우리로 남고, 침식에 약한 화강암질 편마암은 퇴적되어 진안고원을 이루었다.

봉우리 암벽에는 타포니(taffoni)라는 풍화된 흠들이 나 있다. 이 흠들은 충진토양인 메트릭스(mentrix)에 박혀 있던 작고 굵은 돌이 풍화로 떨어져나간 자리이다. 그 타포니에 흠먼지가 채워지면서 구실사리, 산겨울, 김의털, 조륙사리 등 몇 종의 식물들이 간신히 뿌리를 내리면서 특이한 식생태계를 보여준다.

산겨울은 여러 해살이 사초와 식물로, 그늘진 바위틈이나 건조한 숲 속에서 자란다. 뿌리줄기는 굵고 짧으며, 꽃줄기는 10cm 가량, 줄고 긴 잎은 30cm 가량이다.

은수사 매점 옆에 회포곶곶한 은백양나무가 서 있다. '은백양(銀白楊)'이라는 이름은 나뭇잎의 뒷면 색깔이 은백색을 띠고 있기 때문이다. 중앙아시아가 원산지인 은백양은 일제강점기 때 우리나라에 들어왔다. 도입 초기에는 조경수나 가로수로 심었으나, 봄철에 꽃뿔을 많이 날리고, 뿌리가 깊지 못해 여름철 태풍에 잘 넘어지고, 병충해에도 약해서 이제는 거의 심지 않게 되었다.

탐사로 내려가는 숲길 옆으로 개울물이 있지만, 장마철인데도 물소리가 들린다. 게다가 개울바닥을 시멘트로 발라 놓아서 섬진강 발원지를 무색케 하고 있다.

탐사는 돌담으로 이루어진 절이다. 돌담의 재료는 마이산 역암에서 풍화작용으로 떨어져 나온 크고 작은 돌이다. 허튼총쌍기로 축조된 돌담들은 대부분 원추형이거나 기둥 꼴이다.

탐사 대웅전 아래 바위에 천연기념물인 줄사철나무가 덩굴을 이루며 덮여있다. 나이가 많은 편인데도 주변 암벽을 기어오르며 붙어 있는 상태가 현실해 보인다. 탐사는 남방계식물인 줄사철나무의 북방계 선이다. 남쪽지방에서는 관상용으로 심어도 좋고, 보기 흉한 절개지를 가리는데도 좋은 효과를 나타낸다.



●금당사 연지 ●큰밀잠자리 ●파랑새(촬영=원우 스님) ●끈끈이데나물



## 화염굴 주변 천년약수 무분별 무속행위로 오염 바위산에다 큰 계곡 없어 물 부족...식생 '빈약'

탐사에서부터 탐영제까지는 뱃나무길이 몇 구비로 이어져 있다. 뱃꽃 피는 계절에는 인산인해를 이루더니 꽃 지고 나니 숲길엔 매미소리만 들린다. 진안군은 마이산을 생태관광지로 가꾸기 위해 숲길 주변과 공한지에 참나리를 비롯한 야생화와 단풍나무 등 몇 종의 조경수를 심었다.

탐영제는 마이산 남사면 골짜기를 가둔 인공저수지로, 불교계의 유명 방생지로 오랫동안 성황(盛況)을 이루었던 곳이다. 탐영제 물가에 길이가 석자 가웃이나 되는 큰 연어들이 인기척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때 지어 어슬렁거리고 있다. 그동안 환경용량을 무시한 대량 방생과 붉은귀거북 등 무분별한 외래종 방생으로 수중생태계가 교란되고, 방생 때 던져주는 먹이로 수질이 오염되자 당국이 나서 방생을 금지시켰다.

탐영제 뱃나무 숲길에 개울과 함께 금당사로 내려간다. 개울에는 버들치 몇 마리가 군데군데 모여 유

영을 하고 있다. 이 지역은 개울의 폭도 좁고 수량도 많지 않아 서식하는 담수어종은 버들치 한 종류뿐이다. 탐영제에서 2km 떨어진 이산묘계에 가야 수량이 늘어나고 비로소 피라미와 갈겨니도 나타난다.

개울을 끼고 내려오면 오른쪽에 금당사가 앉아 있다. 한자로는 '金堂寺'와 '金堂寺' 등 두 가지로 표기되고 있는데, 조선 숙종 때 조성된 금당사 폐불에는 '金堂寺'로 표기되어 있다.

금당사 경내와 계류 사이에 차도가 나면서 좁지 않은 길의 집이 되고 말았다. 그 바람에 바람의 모양새도 엉성하고 바람배치도 산만해져서 산중사찰다운 면모를 잃어버렸다. 금당사 본존불은 기록에 은행나무로 조성한 것이라고 한다. 통나무에 새긴 불상의 폭이 1m 65cm, 용문사 은행나무의 지름인 4m에는 비길 바 못 되지만, 수령이 적어도 수백 년 된 노거수로 빛났음은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

은행나무는 재질이 치밀하고 트지 않아서 불상이나 고급 가구를 만드는 데 요긴하게 쓰였다. 나무속에 '플라보노이드'라는 살균과 방충 성분이 들어 있다는 점도 조각재나 가구재로서 큰 장점이다. 삼재의 색깔이 황백색을 띠고 있어서 부처님의 금색신을 조각하는 데도 안성맞춤이다.

금당사 대웅전과 극락전 뒤로 숲이 내려와 있지만, 연못이 짙어서 그윽한 맛이 없다. 그나마 경내 식생 조경이 빈약해서 산중사찰이라도 절만한 나무그늘이 없다.

그런 가운데 연못은 생기가 촉촉한 비오름이다. 다소 왜색(倭色)을 띠고 있는지만, 잠자리 유충을 비롯한 수서생물이 살고 있고, 개구리도 이곳을 태실지로 삼고 있다. 이 연못의 생태적 가치를 높이려면 우선 수생식물이 좀 더 보완되어야 할 것 같다. 수질을 정화시키는 침수식물과 부유식물도 필요하다. 꽃이 아름다운 여러연꽃, 물옥잠, 꽃창포 등도 심어두면 좋을 것이다.

마이산은 바위산인 까닭으로 조류상이 빈약하다. 큰 계곡이 없어 산에 틀어 부족한 것도 또한 원인으로 지적될 수 있다. 여름철새인 파랑새 한 마리가 금당사 뒷 숲에 앉아 있다.

파랑새는 붉은 부리를 가진 비둘기만한 크기의 새이다. 몸통은 진한 청록색을 띠고 있어서 얼핏 보면 검은색으로 보인다. 허공을 비행할 때는 양쪽 날개에 흰색의 무늬가 선명하다. 금당사에서 고금당까지는 호젓한 산길로 1km. 어느 처사의 부도가 외로이 서 있는 산길 주변엔 여기저기 묵발이 보이고, 개망초가 흐드러지게 피어 있다.

마이산은 대부분 바위로 이루어져 식생은 훌륭한 편이 못된다. 암벽에 육송이 간간히 보이지만, 리기다소나무 식재량이 더 많다. 금당사 뒷산과 고금당 주변 등 토양층이 발달된 부분은 신갈나무 군락이 약간 형성되어 있고, 천왕문에서 은수사와 탐사를 잇는 계곡부에는 느티나무군락이 좁게 분포되어 있다. 노거수로는 화염굴 앞의 느티나무가 고작이다.

참나무로는 굴참나무가 흔하고, 관목층에는 조륙사리, 산조팝나무, 국수나무, 싸리 등이 나타난다.

초본류로는 주름조개풀, 산겨울, 김의털, 바위채송화, 산부추 등이 관찰되었다. 귀화식물로는 끈끈이데나물 등이 보이고, 고금당 가는 산길엔 질경이와 토끼풀이 질펀하다. 끈끈이데나물은 유럽에서 관상용으로 들어왔다가 전국적으로 퍼져버린 야생초이다. 키는 50cm 정도 되고, 여름에 자갈한 자주색 꽃이 핀다. 꽃대 밑에 끈끈한 진액이 있는 게 특징이다.

우화를 마친 큰밀잠자리 알컷 한 마리가 젖은 날개를 햇살에 말리고 있다. 수컷의 몸통은 남색을 띤 회색, 알컷은 검은 줄무늬가 있는 노란색이다. 무리를 이루지 않고 단독생활 하는 습성이 있다.

금당사는 사적에 비해 사역(寺院)이 42만평으로 엄청 넓다. 마이산의 대부분이 금당사 소유로 되어 있다. 금당사는 주차장과 공중화장실을 비롯해 갖가지 용지를 공익차원에서 무상으로 내놓고 있다.

김재일(사찰생태연구소장) temple-e@hanmail.net

## 원순 스님 '열강' 동영상으로

원각경 특강 CD 제작 100부 한정 보급

현대불교신문이 창간 13주년을 맞아 불자 여러분의 공부를 돕고자 '원순 스님의 <원각경> 특강 CD'를 제작 100부 한정 보급합니다. 해인사 백련암에서 성철 스님 문하로 출가해 제방 선원에서 수선(修禪)하고 제경전(諸經典)을 연찬한 원순 스님이 조계종 동화사 기본 선원에서 10일간 강의 한 내용을 그대로 생생한 동영상 CD에 담았습니다. 문수 보현 미륵 보살 등 12보살이 열어 주는 진리의 세계, 그 환한 세상으로 가는 길, 동영상 CD로 만나는 원순 스님의 '열강'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 제 목 : 원순 스님의 <원각경> 특강
- 분 량 : 총 10강 동영상 CD 20매
- 강 의 : 2007년 9월 16 ~ 27일 (10일)
- 장 소 : 조계종 동화사 기본선원
- 제 작 : 현대불교영상사업단
- 가 격 : 19만원 (교재 포함)
- 교 재 : 함허득통 주해 원순 스님 풀이 <한글원각경> (법공양 판, 2만 5000원)
- 구입문의 : 02)2004-8397, 8200
- 입금계좌 : 국민은행 038-25-0008-365 (예금주 : 에이치비엠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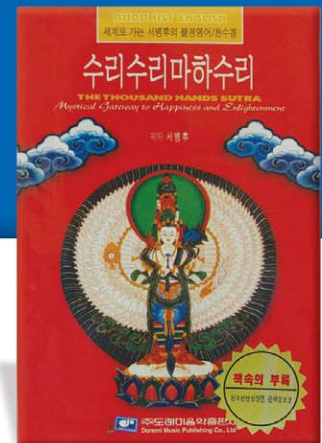


## 세계로 가는 서병후의 불경영어 · 천수경 수리수리마하수리 THE THOUSAND HANDS SUTRA

Mystical Gateway to Happiness and Enlightenment



책 1권, 오디오테이프 3개포함  
20,000원 → ₩ 14,000원  
저자 서병후 | 156쪽 | A5  
출판사 : 도래미음악출판사



보다 활발한 한국 불교의 해외 포교, 그리고 신세대 지식인들에 의한 넓은 시야의 불교 공부와 수행을 위한 기본적 불경 영어 가이드로서 기획된 이 책은 천수경을 첫 텍스트로 했습니다. 영어화된 산스크리트어는 영어로 다루고, 그 표기도 표준적 국제 시스템에 따랐습니다.

자비와 깨달음의 감로를 내려주시는 천수천안 관세음보살의 구원의 염원이 담긴 천수경의 신비스런 비밀공식이 우리를 앞에 펼쳐집니다.

오랫동안 국내외에서 불교를 연구해 왔고, 풍부한 영어교육경험을 갖춘 필자가 선사하는 최초의 영어완역 천수경과 현대적 시각의 주해, 통쾌할 정도로 행간을 꿰뚫는 새로운 해석은 우리들을 감동케 할 것입니다.

온라인 책방 여시아문  
02)737-0695